



2면

미국 뉴저지주와 교류협력 활성화 주목

전주매일

www.jjmaeil.com

2023년 4월 17일 월요일 (윤 2월 27일) 제3244호

대표전화 (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류풍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전북, K-문화 · 체육 · 관광산업 거점으로

도, 비전선포식 개최

2026년까지 10대 전략
40개 과제 4조1816억 투입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북 문화산업화 초석



지난 14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K-문화·체육·관광산업 거점 조성 비전 선포식'에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장, 소재호 전북예총 회장, 조오익 전북관광협회장 등 참석자들이 비전 선포식을 갖고 퍼포먼스를 갖고 있다.

전북도가 보유한 문화자원에 창의성과 첨단기술을 더해 대한민국 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으로 우뚝 서기 위한 발걸음을 본격 내딛는다.

전북도는 1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에서 김관영 도지사와 도의회 유관기관 단체 기업체 시군 전문가 등 100여 명이 모인 가운데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을 발표했다.

'조성계획'에는 문화·체육·관광의 정책목표와 10대 핵심전략, 40대 실행 과제 산업거점개념, 분야별 거점화 전략 추진체계 등이 담겨 있으며,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간 4조1,816억 원을 투자한다.

전북도는 오는 2028년도까지 문화·체육·관광자산을 글로벌 콘텐츠로 발굴 생산, 체험, 소비할 수 있는 '국제적인 산업거점'을 육성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전라북도 문화산업화의 초석을 다진다는 정책목표를 제시했다.

전북도가 수립한 10대 전략은 문화 분야에서는 △K-크리에이티브 문화기

반 조성, △지역발전 견인하는 문화 인프라 확충, △역사문화자원의 콘텐츠 산업화, △살아있는 유·무형 역사 자원 활용 기반, 관광 분야는 △신성장 관광콘텐츠 육성, △치유관광·역사 문화 거점 조성, △지속가능한 관광산업 생태계 구축, 체육 분야는 △스포츠 인재양성 및 산업클러스터 조성, △태권도 산업 집중을 통한 성지화, △생활스포츠 산업화를 통한 확장을 내세웠다.

문화분야는 초기 창업기업 위주의 단편적 지원에서 탈피해 인력·생산·장조·유통·소비생태계가 유기적 네트워크를 형성해 천년의 전북문화를

글로벌 시장에 진출시킨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는 전북의 특화된 문화유산 자원을 디지털 자원화하는 등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재창조하고 K-문화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전북의 문화콘텐츠가 K-문화의 기군이 되는 기반을 조성해 지역의 문화·경제적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관광분야에서는 새로운 지역관광수요에 맞는 신(新)성장 관광콘텐츠도 육성한다. 대한민국 맛의 수도답게 전북민의 미식 이미지를 구축하면서 관광객의 장기 체류를 유도하는 관광지와 축제를 연계 육성하는 등 국제관광

도시로서 면모를 갖추 나가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전북의 최대 장점인 청정 자연과 전북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역사 종교자원을 활용해 미래관광산업의 새로운 트렌드로 떠오르는 웰니스 관광을 집중 육성하기로 했다.

체육 분야는 유소년 스포츠 콤플렉스와 지역거점 국가대표선수촌 건립, 선수들과 훈련 정보를 공유하는 스포츠기업 R&D 지원센터 등 스포츠 제품 기업 육성 국제태권도사관학교 설립 등을 통해 거점화에 나선다. 김관영 도지사는 "우리 전북은 가

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는 물론 힘과 치유를 위한 생태환경까지 K-콘텐츠를 풍성하게 지닌 곳이다."며 "이같은 유·무형의 자산을 폭넓게 활용해 부가가치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전산화·지능화·지능화가 산업 전반에 도입되면서 탈고용적 산업생태계가 더욱 공고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 전북도가 문화·체육·관광의 자산을 산업화 하려는 것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해 신성장동력 확보, 지역균형발전 등 1석3조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 문이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올 농촌공감여행
플러스사업 시행

전북농촌관광 플랫폼
'참참' 통해 신청 가능

전북도는 전북농어촌종합지원센터와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해 '2023년 농촌공감여행 플러스'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농촌 공감여행 플러스 사업은 전북형 농촌관광 브랜드를 일리고 농촌의 가치를 확산하고자 농촌여행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우수한 여행지를 경영체로 선정해(농촌체험휴양마을·6차인증 경영체 6개소) 관광객 유치에 따른 경비를 지원하고 있다.

농촌관광 경영체는 △기업 워크숍, △단체 MT, △교과 연계 체험학습, △가족여행 △우정여행 등 다양한 프로그램과 시설이 준비돼 있다.

농촌여행을 희망하는 1인 이상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농촌체험휴양마을과 농촌융복합산업경영체를 방문하면 체험 프로그램 이용금액의 최대 50%, 숙박요금의 최대 30%까지 할인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전북농촌관광 통합 플랫폼인 '전북농촌여행 참참(www.chamchamtrip.com)'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원식 도 농생명축산식품국장은 "대한민국 농생명 산업 수도라는 브랜드 가치에 걸맞도록 다양한 농촌관광 여행 상품을 선보일 예정이다."며 "방문객에게 만족스러운 농촌여행 추억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수산식품 주도기업, 익산에 제2공장 준공

수산식품 주도기업인 SCDD(대표 이사 강병수)가 익산시에 제2공장을 새로 짓고 지난 14일 준공식을 가졌다

도내 김 수출 1위기업인 SCDD(주)는 국가식품클러스터 산업단지에서 제2공장을 준공하며 국내 수산식품 수출 1위 분야인 9,000억대 김 수출 시장 판로 확대에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해외 수출 대표기업답게 이마태오 세계한인무역협회 수석부회장, 윤두섭 세계한인무역협회 동남아시아지역부회장, 태국·말레이시

SCDD, 국가식품클러스터에 약 70억 투자

9000억대 김 수출 시장 판로 확대 교두보 마련

아·베트남 바이어들도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회사는 신제품 생산시설 신설 등 사업규모 확대를 위해 70억원을 투자해 건축면적 1,637㎡ 규모의 제2공장 준공을 마쳤으며 앞으로 약 50명의 근로자를 채용할 계획이다.

SCDD(주)는 조미김을 통해 태국과 러시아에 주로 수출했고 태국에 온라

인·오프라인 매장 운영에 이어 이번 제2공장 신제품 생산으로 미국, 일본, 중국 등으로 수출 판로를 확대할 예정이다

SCDD(주) 강병수 대표는 "이번 국가식품클러스터 2공장 준공으로 SCDD를 500억원 매출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됐다"며 "제조라인 확대를 통해 더욱 맛있고 다양한 김을 제



수산식품 주도기업인 SCDD(주)가 익산시에 제2 공장을 새로 짓고 지난 14일 준공식을 가진 가운데, 참석자들이 테이프커팅을 하고 있다.

조·수출해 국내를 대표하는 수출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박갑수 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은 "세계경제 침체 우려 및 고금리 시대 등 어려운 시기에 재투자를 해주시는 강

병수 대표와 기업 임직원분들에게 감사하다"며 "국가식품클러스터에 투자한 것이 밑거름이 되어 세계적인 식품기업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SCDD(주)는 현재 전북 김 수출의 35%를 점유하고 있는 도내 김 수출 1위 기업으로 2018년 제1공장을 가동하며 우수한 상품으로 글로벌 강소기업, 중소기업 국가대표 우수브랜드에 선정된 국내 대표 수산식품 수출기업이다. /익산=이재훈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의 지름길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천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